

군인들의 '자율점심'…인근 식당 '함박웃음'

광주 북구 31사단 간부들 수요일마다

간부 식당 운영 멈추고 부대밖 이용케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이 되면 광주시 북구 오치동 31사단 인근 식당 가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로 북적인다.

삼삼오오 짜를 지어 인근 오치동과 일곡동, 용봉동까지 '호남 손맛'을 찾아 온 군인들을 맞는 식당 주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육군 제 31보병사단(소장 박병기)이 주진중인 '자율 종식의 날' 행사가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군부대 중 전국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사단측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향토 사단'을 내건 박 소장 방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간부식당 대신, 군부대 밖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자율 종식제'를 진행중이다.

사단측은 간부들의 부대 밖 점심을 권유하는 취지에서 수요일 점심 시간에는 간부 식당도 운영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차례 '자율 종식의 날'을 운영하는 부대는 더러 있지만 매주 한 차례 지역 식당 이용을 정례화한

경우는 31사단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매주 수요일이면 오치동, 삼각동 식당에는 군복 차림의 손님들이 가득하다. 사단 근무 군인 간부들만 400명이 넘어 맛집을 찾아 일곡동이나 용봉동까지 '원정' 점심을 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일곡동 주민센터 인근 K냉면집을 운영하는 업주 오모(여·58)씨는 "여름이면 냉면과 만두를 먹으려 오는 군인이 많아 일반 손님들이 '부대 식당'이니며 물기도 한다"면서 "군인 손님을 위해 더 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31사단 군인들의 '수요일 점심 특수'가 이어지면서 식당 업주들은 이 시기에 맞춰 음식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는가 하면, 1시간 일찍 문을 열고 '군인' 손님 맞이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군인들의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율 종식의 날'에 참여하는 군인들도 적극적이다. 한 기 2500원에 불



지난 2일 제31보병사단 군인 간부들이 수요일마다 영외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자율 종식의 날'을 맞아 부대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다. (31사단 제공)

과한 간부 식당 대신, 6000원이 넘는 부대 밖 식당을 이용하면서도 "군 생활의 희열소가 되고 있다. '맛집'을 찾았더니면서 돈이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외지 출신 군인들의 경우 무안 새발 낙지, 담양 떡갈비, 창령 국밥 등

'남도 맛집'을 돌며 '음식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단은 자율 종식의 날을 부대원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미니 간담회' 자리로도 활용하고 있다.

31사단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도

움을 주면서도 지역민과 군 부대원간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자율 종식의 날을 운영중"이라며 "민·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호남고속철 전력선 값싼 중국산 썼다

낙찰금액 158억 보조 전력선, 국산으로 속여 납품

경찰, 납품 전선회사 수사…국과수에 성능검사 의뢰

충북 오송과 전남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저가 중국산 전력선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산 보조전력선인 것처럼 속여 저가 중국산 전력선을 납품한 혐의로 A 전선회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되는 보조 전력선의 총 낙찰액은 158억원이며 이를 제작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공이 끝난 약 60%의 공사 구간에서 모두 저가 중국산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선은 고속철도에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전선으로 주전력선과 보조전력선으로 구분된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구간에서 불량 전선이 상당 부분 납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공사에 납품된 전력선을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사용되는 주전력선·보조전력선 공급 입찰에서 입찰회사들이 합당한 정찰을 확보하고 8개 전선회사를 지난달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00억원대 전력선 공급 입찰에서 서로 짜고 2개 회사가 각각 주전력선·보조전력선 납품회사로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 총 230.9km 구간 중 오송~광주송정 간 182.3km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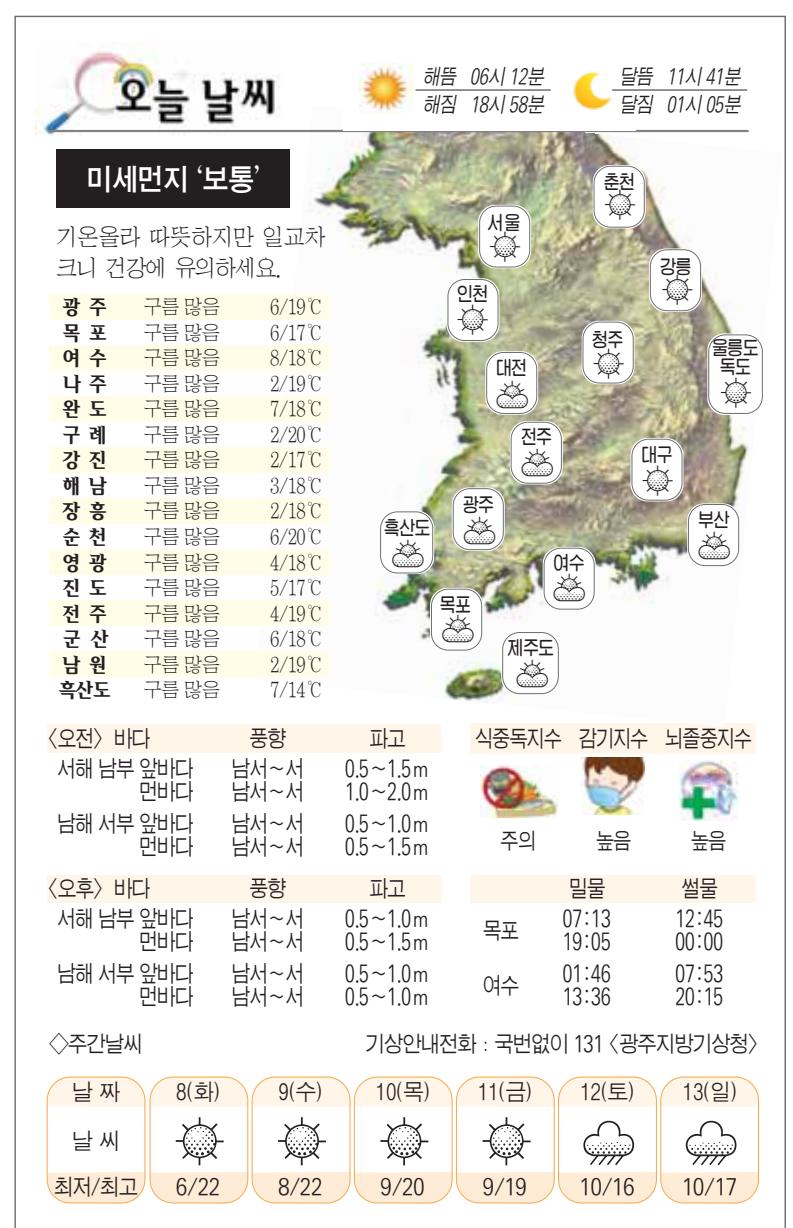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식약청 "식품첨가물 MSG 평생 먹어도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발행하는 웹진 '열린 마루'(2014년 3월호)의 '식품첨가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란 글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번지며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오해 해소에 나섰다. 먼저 식약처는 감칠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지만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MSG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정식 명칭인 MSG는 과다 섭취하면 뇌신경세포가 과피되고,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MSG는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이미 판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증인 노출 따른 보복범죄 예방

대법, '의명증언제' 도입한다

정부 입법 등 추진

다.

대법원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명 증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6일 재판장이 증인에게 의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은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의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증인이 낸 증거가 피고인에 관한 유일한 또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의명 증언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증인이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 등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의명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의명 증언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의명 증언의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다소 상충돼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제화 과정이 어떻

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27조에는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개별 법률로서 의명 증언을 허용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제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14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 체험

은혜학교 · 신광중학교 무등산 숲길체험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09:00~13:00
장소 | 무등산 일원

무등산 숲 문화제

일시 | 2014년 4월 10일(목) 13:00
장소 | 충효동 왕버들 특설무대

주최 산림청, (주)광주일보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광주학교
(사)광주학교

주관

은혜학교 학생들이 무등산 숲길을步行하는 모습입니다.

무등산 숲 문화제에서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의 공연 모습입니다.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학생들이 무등산 숲길을步行하는 모습입니다.